

# 당뇨병 실태에 대한 최근 통계자료/빈곤상태

이처럼 당뇨병은 점차 환자 개인이나 전문의료진을 비롯한 의료기관등에서 통용되는 심각한 질병에서 현대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이 사회적 일반상식으로 자리잡기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정보가 제시되어져야함은 필연적이다.

최근 당뇨병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당뇨병에 대한 관심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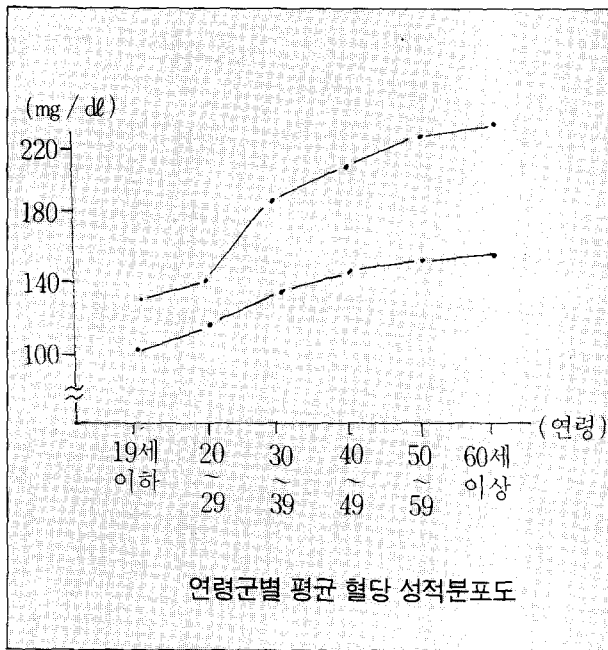
이제 당뇨병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은 단지 발병률의 증가와 치료가능성등 일반적인 호기심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지식습득의 범위로까지 발전하게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스템인 당뇨병교실을 주축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방송·출판등 대중화된 매스미

디어를 통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모방송국에서 방송된 노인대상의 오락프로그램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퀴즈로 풀어봄으로써 당뇨병이 환자를 비롯한 소수집단만의 당면문제라는 제한적 시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직면가능한 공동의 관심임을 극적으로 드러낸바 있다.

이날 출제된 문제의 유형을 보면, 국내 당뇨병의 유병률, 당뇨병의 일반적 증세,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 합병증의



유무 등 비교적 전문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퀴즈참가자들이 정확한 답을 골라내는 지적수준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매스미디어를 통해 점차 일반화

이처럼 당뇨병은 점차 환자 개인이나 전문의료를 비롯한 의료기관등에서 통용되는

심각한 질병에서 현대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뇨병이 사회적 일반상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정보가 제시되어져야 함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당뇨병 관련 정보체계는 매우 취약한게 사실이다. 이는 국내 당뇨병 유병률조차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발표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당뇨병 전문의가 말하는 국내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인구의 2~3%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도 추정일뿐 정확한 조사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선의료진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이에대한 정확한 조사데이터가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건강을 궁극목적으로하는 보건사회부에서조차 당뇨병 유병률에 대한 조사자료가 지난 86년도에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것을 기초로한 추정통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인 유병률조차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병률을 비롯한 당뇨병 실태조사가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차원의 문제점 인식부족 및 안일한 행정처리, 둘째로는 국내의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체

이제 당뇨병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부상했으며 대책마련에 국가는 물론 전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자발적으로 선행돼야할 시점에 다다랐다. 따라서 최근에 발표된 당뇨병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토·유추해봄으로써 문제해결의 열쇠를 가시화하는 것도 당뇨병 발생을 저지하는 대책마련에 기초가 될 것이다.

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가 부진하다는 점과 세 번째로 아직도 당뇨병을 마치 천형처럼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 등을 꼽아볼 수 있다.

### 당뇨병 관련 정보체계 기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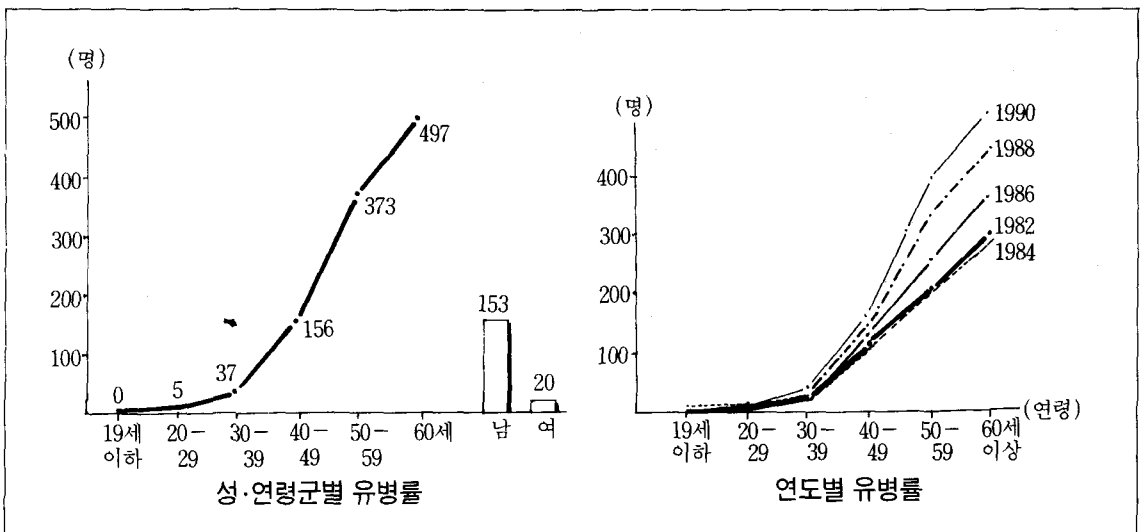
이제 당뇨병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부상했으며 대책마련에 국가는 물론 전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자발적으로 선행돼야할 시점에 다다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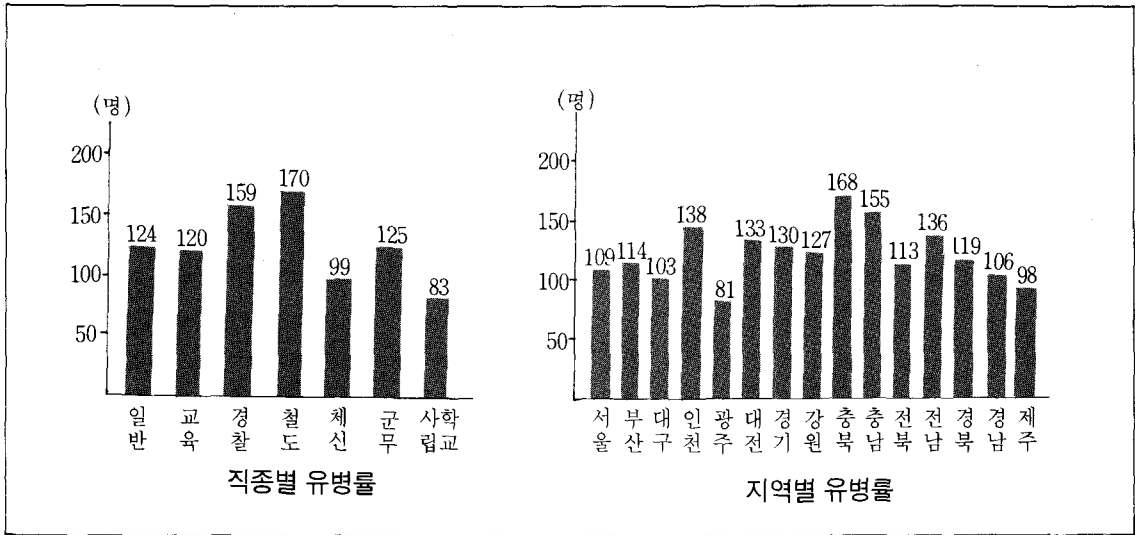
따라서 최근에 발표된 당뇨병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토·유

추해봄으로써 문제해결의 열쇠를 가시화하는 것도 당뇨병 발생을 저지하는 대책마련에 기초가 될 것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주양자)이 지난 91년 8월에 발표한 건강진료관리 분석에 따르면 당뇨병 유병률은 수검인원 10만명당 1백20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1백53명, 여자 2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7.5배 높았다. 연령군별 유병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40세 이후부터는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유병률의 변화양상은 1980년-42명, 1982년-67명,





1984년-68명, 1986년-87명, 1988년-1백8명, 1990-1백2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한눈에 확인가능하다.

직종별 유병률을 보면 사립 학교 교직원(83명), 체신공무원(99명)은 평균 유병률인 1백20명보다 다소 낮으나, 철도 공무원(1백70명), 경찰공무원(1백59명)은 평균보다 높았고 군무원(1백25명), 일반공무원(1백24명), 교육공무원(1백20명)은 평균 유병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대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나 생활자체가 불규칙한 직장인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흥미를 끈다.

지역별 유병률도 차이를 많이 나타냈는데, 광주(81명), 제주(98명) 지역은 평균 유병률인 1백20명보다 낮으나 충북(1백68명), 충남(1백55명) 지역은 평균 유병률보다 높았으며 그외 기타지역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당뇨병 유병률 해마다 증가

또 1차 건강진단 결과 당뇨병 의심자로 판명돼 혈당검사를 한 2만1천4백26명이 식전 혈당 성적분포는 전체중 64.79%인 1만3천8백81명이 120mg/dl 이상 구간에 분포하였

으며, 평균이 146.99mg/dl로 정상수치에 비해 다소 높았다.

성별 평균 혈중농도는 남자가 147.32mg/dl인데 반해 여자가 140.46mg/dl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6.86mg/dl가량 높게 나타났다.

식후 혈당 성적분포는 수검자 2만3천7백26명중 68.99%인 1만6천3백69명이 140mg/dl 이상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혈당수치가 209.64mg/dl로 당뇨병의 위험성을 예고했다.

성별 평균 혈중농도는 남자가 210.5mg/dl 여자가 192.23mg/dl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18.28mg/dl나 높게 집계됐

식전·식후 혈당의 상관분포

(단위 : 명)

구 분		식 전 혈 당			
		119 mg / dl이하	120-149 mg / dl	150 mg / dl이상	계
식 후 혈 당	119mg / dl이하	3,160	549	152	3,861
	120-149mg / dl	2,241	1,120	167	3,528
	150-179mg / dl	908	1,180	404	2,492
	180mg / dl이상	1,108	2,747	7,319	11,174
	계	7,417	5,596	8,042	21,055

건강진료관리 분석에 따르면 당뇨병 유병률은 수검인원 10만명당 1백20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1백53명, 여자 2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7.5배 높았다.

다.

또 검사를 받은 2만1천55명의 식전·식후혈당의 상관분포는 당뇨병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인 식전혈당 150mg / dl 이상, 식후혈당 180mg / dl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4.76%인 7천3백19명으로 밝혀졌다. 당뇨병을 의심케하는 범위인 식전혈당 120mg / dl 이상, 식후혈당 150mg / dl 이상인 경우도 수검자의 20.57%인 4천3백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자료외에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90년도 사망원인 통계연보를 보면 90년 한해동안 사망한 총사망자 1십9만1천10명중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천1백15명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 당뇨병이

사인(死因)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나눠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남자 사망자수가 2천3백27명으로 총 사망자 1십1만3천5백75명중 12.9%, 여자의 경우는 총사망자 7만7천4백35명중 1천7백88명으로 10.8%를 기록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때 한국의 90년도 총사망자중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1.8%인데 비해 89년도 일본의 경우는 7.5%, 중국은 5.1%에 그치고 있어 주변국들중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및 치료실태가 최대위기에 직면했음을 새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庚〉